

대구지역 누정제영시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의미

최 은 주*

- I. 머리말
- II. 대구지역의 누정 현황
- III. 대구지역의 누정제영시에 나타난 공간인식
- IV. 문학적 소통을 통한 공간의 향유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구지역의 누정을 살펴보고, 특정한 누정 공간에서 창작된 작품들을 통해 당대인들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문학생성공간 가운데 누정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누정이 보통 경관이 빼어난 곳에 세워지며, 강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누정은 지리적 환경에 기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문학작품 창작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문학의 생성공간이자 문학작품 속 공간은 인간, 즉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채 작품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작품들은 당대인의 인식과 문화를 생생하게 살펴볼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skyey0324@koreastudy.or.kr

수 있는 자료이다.

대구는 1601년 경상감영이 자리한 이후 경상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역이다. 이 시기 대구는 관찰사가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행정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남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낙동강의 중류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특히 낙동강은 『世宗實錄地理志』에서도 영남의 대천으로 일컬어졌으며, 이 강을 중심으로 경상도의 좌우가 구분되는 등 지역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이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누정과 그곳에서 생성된 문학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먼저 지리지에 제시되어 있는 누정을 살펴 대구지역 누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영시가 남아 있는 누정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당대인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의 누정들은 대체로 누정을 건립하면서 주인이 부여한 명칭을 비롯해 그 누정이 위치한 곳과 밀접한 관련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공적인 목적을 띠고 건립된 누정이 아닌 경우 누정이라는 공간에서 생성되는 감성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통해 생성된 낭만감성이 주조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나, 건립자의 의도가 담긴 명명행위를 통해 도학감성이 생성된 누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의 누정은 강안지역이 지닌 회통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인물들이 방문하여 아름다운 산수를 즐기는 한편, 향촌사회의 혈연적 결속을 다지고 학문, 문학적 연계망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 주제어

대구, 누정, 제영시, 공간인식

I. 머리말

공간과 시간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문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문학에서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작품 내외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특히 실재하는 지리적 공간에 기반하고 있을 경우 이는 지역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여기서 문학작품의 공간은 단순히 지명을 지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며, 작품의 작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에 처해 있으며 또한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공간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당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에서 살펴볼 대구는 1601년 경상감영이 자리한 이후 경상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역이다. 『택리지』에서 “대구는 감사의 치소가 있는 고을이다. 사방이 산으로 높게 둘러싸여 있으며 가운데에 큰 들판이 펼쳐져 있다. 들판 가운데로 琴湖江이 지나가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洛東江으로 들어간다. 대구 읍치는 금호강 남쪽에 있다. 경상도 중앙에 위치하여 남북의 경계에 이르는 거리가 비슷하다. 또한 형세가 도회지로 훌륭하다.”¹⁾라고 한 것에서 대구가 지니는 입지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대구는 관찰사가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행정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남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낙동강의 중류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世宗實錄地理志』에서도 영남의 대천 가운데 그 첫째로 낙동강을 꼽은 바²⁾ 있으며,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도의 좌도와 우도를 구분하는 지리관념이 오래도록 활용된 것을 통해서도 이 강이 지니는 의미를 알 수 있다.

1)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慶尙道>. “大丘卽監司所治也 四山高塞 中藏大野 野中爲 琴湖江 自東入西 而合于洛東下流 邑治在江之陰 處一道中央 南北道里甚均 亦形勝都會之地也”

2)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大川三, 一曰洛東江.”

낙동강과 금호강이 감싸듯 돌면서 합류하니 서남쪽으로 띠처럼 돌렸고, 琵琶山과 最頂山이 수려하게 두루 겹쳤으니 동남쪽에서 控揖하는 듯하다. 팔공산이 그 북쪽을 누르고 新川이 그 동쪽을 감돌다가 금호강물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곳에서 합류한다.³⁾

제시한 자료는 『大丘邑志』에서 대구의 形勝을 설명한 것으로, 남부와 북부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낙동강과 그 지류인 금호강이 흐르는 지리환경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의 지리적 환경을 설명한 자료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천이다. 특히 낙동강과 금호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은 인류의 문명이 발생한 중심지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삶의 터전으로 기능하고 있다.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할 때 경상도 내 71읍 가운데 55읍이 직접 낙동강의 유역에 위치하며, 나머지 16읍은 비록 본류-지류의 하천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교통·漕運상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이 강이 영남의 문화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였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 기반하여 대구지역의 누정을 살펴보고, 특정한 누정 공간에서 창작된 작품들을 통해 당대인들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누정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많은 이들이 오고가는 누정은 보통 경관이 빼어난 곳에 세워지며, 이때 강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낙동강은 대구지역의 문학작품 생성의 공간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문학작품 속 공간은 인간, 즉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작품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즉 당대인의 인식과 문화는 그들이 창작한 작품 속에 생생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누정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누정을 대상으로 하여

3) 『大丘邑志』, 「形勝」. “洛江琴湖 縈迴合流 而橫帶乎西南 琵琶最頂周疊秀麗 而控揖乎東南 公山鎮其北 新川環其東 合于琴湖四方之會”

4) 金宅圭, 『洛東江流域史研究』,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6, 12쪽 참조.

몇 편의 연구⁵⁾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개별연구대상으로 삼은 누정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안지역과 여기서 창작된 문학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누정제영시를 통해 이들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인들의 삶에 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대구지역의 누정 현황

누정은 樓閣과 亭子의 약칭으로, 일상적인 주거지로서의 성격을 지닌 건물은 아니다. 특별한 別墅 공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문학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는 누정이 대개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거나, 수려한 경관을 조망하기 좋은 곳에 세우는 위치적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치를 감상하거나, 강학하고 수양하거나, 혹은 씨족끼리의 宗會를 비롯한 각종 계가 개최되던 공간 등으로 사용되면서 다양한 문화활동이 영위되었다. 지역마

5) 구본옥, 「팔공산과 금호강을 왕래하며 강학한 송담(松潭) 채응린(蔡應麟) -대구 제1의 정자 압로정(狎鷺亭), 소유정(小有亭)과 관련하여-」, 『조선사연구』 21, 조선사연구회, 2012.

구본옥, 「태암 이주의 환성정에 관한 고찰」, 『조선사연구』 22, 조선사연구회, 2013.

구본옥, 「금호강 하류에 선사서당(仙查書堂)을 연 임하 정사철(林下 鄭師哲) -아금암(牙琴巖), 아금정(牙琴亭)과 관련하여-」, 『조선사연구』 23, 조선사연구회, 2014.

구본옥, 「낙포 이종문의 생애와 하목정(霞鶯亭)」, 『조선사연구』 26, 조선사연구회, 2017.

김성은, 「『小有亭題詠』詩의 장소성 연구」, 『동남어문논집』 45, 동남어문학회, 2018.

황명환, 「부강정 관련 한시에 나타난 공간감성과 지역적 특징」, 『인문사회21』 9,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김충희, 「『小有亭題詠錄』을 통해서 본 금호강 江岸文學」, 『대동한문학』 66, 대동한문학회, 2021.

다 수많은 누정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인문환경이 존재하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누정을 문학창작의 공간으로 주목하는 것은 당대의 문화를 살피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대구지역에도 수많은 누정이 존재하였다. 여기서는 지리지의 누정 항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으로 삼은 지리지는 4종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는 조선 전·후기를 대표하며, 『大丘邑誌』와 『慶尙道邑誌』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료라는 점에서 누정에 대한 문헌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들 자료에 나타난 대구지역의 누정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No	서명	시기	누정
1	『新增東國輿地勝覽』	16세기	琴鶴樓
2	『輿地圖書』	18세기	琴鶴樓, 樂育齋, 霞鶯堂, 全歸堂
3	『大丘邑誌』	18세기 (1768년)	霞鶯堂, 全歸堂, 洗心亭, 狎鶯亭, 喚醒亭, 牙琴亭
4	『慶尙道邑誌』 ⁶⁾	19세기 (1833년)	霞鶯堂, 全歸堂, 洗心亭, 狎鶯亭, 喚醒亭, 牙琴亭, 伊洛亭, 壘淵亭, 太古亭, 道禮亭, 追遠亭, 四友亭, 盛才亭, 映碧亭, 琴湖亭, 臥龍亭, 涑溪亭, 赤池亭, 龍潭亭, 寓慕亭, 達城齋, 花巖亭, 華山亭, 梧巖齋

제시한 표는 4개의 지리지에 수록된 누정 항목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관찬지리서의 전형으로 자리 잡은 15세기의 『동국여지승람』을 증보 개정하여 편찬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으로 안에 실린 지도와 함께

6) 「제영조」에는 全歸堂, 永懷堂, 東溪書齋, 安國巖, 四美亭, 菊潭亭, 無盡臺, 勝蘭亭, 狎鶯亭, 干城堂, 河濱倉, 霞鶯堂, 玉泉, 臺山, 樂育齋 관련 작품이 실려 있다.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는 知大丘郡事 琴柔가 건립한 琴鶴樓만 실려 있다. 금학루는 客館의 동북 모퉁이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누정으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관찬지리지에 실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18세기의 『여지도서』에서는 樂育齋, 霞鷺堂, 全歸堂 3곳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는 1756년에 『동국여지승람』의 개수와 보완을 위하여 각 읍지와 여지도를 널리 모아 편찬한 것이다. 낙옥재의 경우 1721년에 경상감사 趙泰億이 설치하였고, 하목당의 경우 1599년 경에 이종문이 서재를 중건하고 편액하였기⁷⁾ 때문에 18세기에 만들어진 『여지도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기에 16세기 후반부터 지방 수령이나 사족에 의해 읍지 편찬이 활발하여 이루어졌는데, 대구지역의 읍지 역시 1637년에 편찬⁸⁾되었으나, 현전하지 않는다. 다만 남아 있는 읍지 가운데 가장 그 시기가 빠른 것은 1768년에 편찬된 『대구읍지』이다. 이 『대구읍지』에는 대구부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 지역민의 현황,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의 제반 시설, 조세 현황 등 지역의 현황과 정보가 총망라⁹⁾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경상도읍지』는 1833년에 경상감영에서 각 군현에서 편찬한 읍지를 합편하여 편찬한 것이다. 18세기 중기에 전국 각 읍의 읍지를 수집하여 편찬한 『여지도서』 이후 70여 년 만에 편찬된 도지로 19세기 경상도 지방 각 읍에 대해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방대한 자료¹⁰⁾라 할 수 있다.¹¹⁾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수의 누정이 실려

7) 구본옥, 「낙포 이종문의 생애와 하목정(霞鷺亭)」, 『조선사연구』 26, 조선사연구회, 2017, 10쪽.

8) 1637년에 대구읍지가 처음으로 편찬된 후, 1697년(우석규), 1757년(조춘경)에 60년 주기로 읍지가 편찬되었으나 현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정병호, 「해제」, 『국역 대구부읍지』, 대구시·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1, 8~9쪽.)

9) 정병호, 「해제」, 『대구부읍지』, 대구시·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1, 10쪽.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상도읍지」 항목(2023.10.1. 검색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2515>)

11) 『경상도읍지』의 초고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대구부읍지』로도 남아 있다.(이재두, 「조선 후기 『대구읍지』 편찬과 사족의 대응 -과거편과 인물편의 인물 수록 시기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학』 2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선 시기에 누정 항목에 들어 있던 금학루 등과 같이 『경상도읍지』에는 빠진 것들도 있다. 이들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편집 의도와 각각의 성격에 따라 公廨 등의 항목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누정은 어디에 위치하였을까? 지리지의 정보에 따라 누정의 위치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No	누정	위치	비고
1	琴鶴樓	객사의 동북쪽 모퉁이	
2	樂育齋	남문 밖	
3	霞鷺堂	부의 서쪽 낙동강 가	낙동강, 李宗文
4	全歸堂	부의 북쪽 20리	徐時立
5	洗心亭	금호강 가	금호강, 全應昌
6	狎鷺亭	부의 북쪽 금호강 가	금호강, 李榮, 蔡應麟
7	喚醒亭	부의 북쪽 금호강 가	금호강, 李輅
8	牙琴亭	부의 서쪽 30리 하남면 죽곡리	鄭師哲, 鄭光天
9	伊洛亭	부의 서쪽 30리 성서면 파산	鄭述, 徐思遠
10	龔淵亭	부의 북쪽 부인동	崔東巢, 崔興遠
11	太古亭	부의 서쪽 40리 하서면 묘동	朴忠後
12	道禮亭	부의 북쪽 15리 동하면	蔡泳
13	追遠亭	부의 남쪽 20리 파잠의 무릉동	楊世興
14	四友亭	부의 남쪽 60리 각북의 남산 아래	朴奎徵
15	盛才亭	부의 북쪽 30리 해북촌	蔡先見
16	暎碧亭	부의 서쪽 40리 낙동강 가	낙동강, 尹仁浹
17	琴湖亭	부의 동쪽 금호강 가	금호강, 權聖允
18	臥龍亭	부의 북쪽 용암 위	南命新
19	涑溪亭	부의 북쪽 동하면 지평	李若采
20	赤池亭	부의 동쪽 20리 동촌	李休運
21	龍潭亭	부의 북쪽 7리 동중면 연암 아래	徐弼
22	寓慕亭	부의 동쪽 20리 동촌의 행동	柳養善
23	達城齋	부의 북쪽 5리 달성 아래	徐有敏
24	花巖亭	부의 서쪽 20리 건법동	白允采
25	華山亭	부의 남쪽 80리 각초동	徐景汶
26	梧巖齋	부의 북쪽 20리 해북촌	柳堯臣

누정은 흔히 樓와 亭뿐만 아니라, 臺, 閣, 堂, 軒, 齋, 菴, 精舍 등을 붙여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위의 표에서도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지리지에 누정 항목과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대구의 누정은 모두 26개이다. 이들 중 금학루와 낙육재 2곳만이 관에서 건립한 공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 건립하거나 경영한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6개 누정이 동서남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 6곳이 낙동강과 금호강 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8세기에 제작된 『대구읍지』의 누정조에 실린 6개의 누정 가운데 4개가 낙동강과 금호강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지역의 대표 누정이 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는 옛 사람들이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방법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 “대저 산이 높고 험준하며 물이 깊고 넓은 곳에 고을이 있으면, 반드시 경치 좋은 누대와 넓은 객관이 있어야만 걸맞다. …… 웅장하고 아름다운 누대를 지어 사방의 빈객들을 받아 노래와 춤을 기생을 두고 글짓는 도구를 갖추어야만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될 것”¹²⁾이라는 말은 당시에 누정이라는 공간과 자연에서의 흥취가 어떻게 연동되어 인식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음의 지도를 보자.

12) 洪貴達, 『虛白亭集』 권2, <善山客舍重修記>. “夫山之高峻 水之深廣 而邑于其間者 必有樓臺之勝 館宇之敞 然後稱也 …… 宜有宏壯巨麗之構 有以受四方之賓客 貯歌舞藏文物 然後爲不孤山水之勝賞者矣”



제시한 것은 『여지도』 가운데 <대구부지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이다. 이 지도에는 산지와 하천 등이 표시되어 있지만, 앞서 제시한 누정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하목정[霞鵞堂]이 표시되어 있다. 하목정이 낙동강가에 위치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대구지역 역시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누정들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구의 수많은 누정 가운데 하목정이 선택되어 지도에 그려진 것은 먼저 이 누정이 건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또한 인조가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 능양군 시절에 하목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일화와도 일정 부분 관련 있을 것이다. <霞鵞亭耑修顛末>에 따르면, 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하목정에 들른 적이 있었고, 이후 이종문의 아들 이지영이 입시하자, 인조가 婦椽을 달기를 명하며 내탕금 은 200냥을 내려 주었다는 것¹³⁾이다. 이처럼 왕과 관련된 일화가 있으므로 많은 이들이 방문

13) 구본옥, 「낙포 이종문의 생애와 하목정(霞鵞亭)」, 『조선사연구』 26, 조선사연구회, 2017, 14쪽 참조.

하게 되었고, 지도에도 대구를 대표하는 정자로 기록될 수 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제시한 지도에는 하목정만 표시되어 있지만, 지리지의 제영 항목에는 다른 누정제영시도 실려 있다. 그 작품의 수적인 측면에서는 하목정 제영시에 비해 다소 소략한 누정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체로 강변에 위치한 누정들이 비교적 다수의 작품이 남아 있는데, 이는 지리적 접근성이나 당시의 자연경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영남의 琴湖江과 洛東江은 모두 물결이 맑고 물가가 깨끗하니, 진실로 물가의 정자가 두 강줄기 가운데 한 줄기만 끼고 있어도 충분히 아름답다.”¹⁴⁾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이 지역의 누정문화에 있어서 낙동강과 금호강이 지니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작품을 살펴보자.

Ⅲ. 대구지역의 누정제영시에 나타난 공간인식

문학작품에서 공간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작품 속에 존재하는 감정, 사상, 경관, 실물, 인물, 사건 등 수많은 요소로 구성된 구체적이고 감지될 수 있는 심미적 공간¹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문학작품과 그 실재적 공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로부터 이름난 명승지를 중심으로 문인들이 樓臺亭閣을 얹어두고 시문을 즐기며 주변 풍광에서 幽靜, 閒雅, 淡泊 등을 추구¹⁶⁾하였다. 옛 사람들은 자연 그대로의 공간을 즐기기도 했지만, 그곳에 인공적 사물을

14) 李敏求, 『東州集』 권3, <浮江亭記>. “蓋嶺南有琴湖洛東江 俱流潔而渚清 苟亭于涯者得一水已擅其奇”

15) 曾大興 저, 정우락 외 옮김, 『문학지리학개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22, 208쪽.

16) 沈慶昊, 「국토산하를 노래한 한국한시의 미학적 전통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18, 한국한문학회, 1995, 69쪽.

함께 두어 그것이 또한 하나의 풍경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낙동강과 금호강 가에 세워진 누정들은 강과 함께 하나의 명승으로 기능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특히 공간은 인간의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데, 인간과 공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상호작용이 바로 공간감성이다. 인간이 특정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공간에서 생성되는 작품은 달리 드러나게 된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상호작용은 공간의 성격과 시간의 흐름, 인식하는 주체인 작가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이들을 대별해 보자면 낭만감성, 사회감성, 도학감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⁷⁾ 대략적으로 보자면, 낭만감성은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 사회감성은 공간을 통해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포착하는 것, 도학감성은 공간에 내재한 도학적 이치를 발견하는 것이다.¹⁸⁾ 이러한 감성은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가 인식하는 바와 문학창작활동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리 드러나게 된다. 이는 특정 공간이 하나의 감성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공간이 지닌 기본적인 환경이나 상황 등에 따라 특정한 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자연의 물리적 공간은 漢詩文 창작의 주요 원천이었다. 시문 창작은 작가와 작품에 따라 여러 의미를 지니지만, 가장 일차적인 것은 서정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낭만감성의 생성과 필연적으로 연동된다고 할 수 있다.

樓下春光不見湄	누각 아래 봄빛 끝이 보이지 않고
上公居處實雄規	상공이 거처하니 진실로 규모가 웅장하구나.
西山疊嶂浮雲外	서산 첩첩 산봉우리 뜬구름 떠 있고
南浦孤帆細雨時	남포의 외로운 고깃배에 가랑비 내리네.

17) 이들 유형에 대한 것은 최은주(「조선시대 영남대로의 공간감성과 문학적 의미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와 정우락(「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감성의 유형」, 『嶺南學』 7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의 논문에 자세하다.

18) 최은주, 「낙동강에 대한 공간감성과 그 의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역락, 2022.

富貴百年專寵樂	백년 부귀 총애와 즐거움을 다했으니
勳名一代被聲詩	한 시대의 勳名 시로 칭송 받았네.
時淸事少身猶健	청명한 시대 일 적어 몸이 오히려 건강하니
驢背閑情景物宜 ¹⁹⁾	나귀 타고 한가롭게 정 나누니 경물이 아름답네.

金命錫(雨溪, 1675-1765)이 하목정을 읊은 작품이다. 그는 李玄逸의 문인으로, 향시에서는 여러 번 장원하였으나, 대과에는 뜻을 두지 않고 고향에 머물며 학문에 힘썼으며, 시문에 재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누정과 주변의 자연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끝없이 흐르는 낙동강과 웅장한 규모의 하목정을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2구의 상공은 李益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익필은 하목정의 주인 이종문의 현손이다. 이익필이 거쳐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익필이 이곳에 기거할 때 방문하고 작품을 지어준 듯하다. 이익필의 딸이 김성탁의 아들인 김제행과 혼인하였는데, 김성탁은 김명석의 재종제이다. 이들은 이처럼 혼맥으로 엮인 관계이므로 하목정에 방문하여 이익필에게 차운시를 지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하목정은 그 누각의 위용과 누각 아래의 강물이 절경인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 이들이 “누각은 높이 서 있고 물빛은 하늘에 닿으니”²⁰⁾라고 읊거나, “강은 넓어 끝이 없고, 정자는 높아 푸른 기운이 스며드네”²¹⁾와 같이 유상하기 좋은 곳으로서 이 공간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앞서 서술한 바 있듯이, 인조가 潛邸시에 방문하였다가 후일에 ‘강산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자’라고 이곳을 기억했던 것과도 연결된다. 앞서 제시한 시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누정은 강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강과 누정이 개별로 인식되기 보다는 하나의 경관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 金命錫, 『雨溪集』 권2, <次霞鶯堂韻>.

20) 『慶尙道邑誌』, 「대구부」, 「제영」. “眺望憑高水接天”

21) 『慶尙道邑誌』, 「대구부」, 「제영」. “江闊無涯浹 亭高入翠微”

山邊碧樹山前水	산기슭엔 푸른 나무 산 앞엔 물
水外靑郊水上家	강 너머엔 푸른 들판 물가엔 집
評水評山無外事	산수를 평하는 건 다른 일 없으니
生平只願故人過 ²²⁾	평생 동안 벗들 찾아오길 바랄 뿐이네.

蔡應麟(松潭, 1529-1584)의 압로정을 읊은 작품이다. 채응린은 금호강가에 압로정과 소유정 두 정자를 짓고 강호에 은거하고자 하였다. ‘압로’는 ‘물새와 더불어 노닌다’는 의미로 자연을 사랑하며 강호에 은거하는 은자들이 제호로 취하는 것이다. 소유 역시 王屋山에 있다는 작고 淸淨한 이상적인 세계, 즉 小有淸虛之天에서 따온 것이다.²³⁾ 채응린이 을사사화를 목도한 이후 출사에 뜻을 접고 금호강변에 정자를 지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그가 자신의 정자를 이와 같이 명명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벗들과 함께하며 자연 속에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누정을 화려하게 수식하여 표현하기보다는 수묵화의 그림을 담백하게 보여주는 듯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18세기 이후 읍지에 압로정은 등장하지만, 소유정은 누정 항목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두 정자가 정유재란 때 화재로 소실된 후 소유정이 먼저 중건되고 이후 46년이 지나서야 압로정이 중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압로정이 중건되기 전에는 소유정이 그 기능을 모두 담당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손처눌의 『모당일기』 1614년 2월 26일자 일기에도 “희로와 함께 소유정에 놀러 갔는데, 마침 정자에 좋은 손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채택중이 나를 그르쳤다. 황어가 크게 올라왔는데, 예로부터 없었던 일이다.”²⁴⁾라고 하여 소유정에서 사람들이

22) 『慶尙道邑誌』, 「대구부」, 「제영」.

23) 구본옥, 「팔공산과 금호강을 왕래하며 강학한 송담(松潭) 채응린(蔡應麟) -대구 제1의 정자 압로정(狎鷺亭), 소유정(小有亭)과 관련하여-」, 『조선사연구』 21, 조선사연구회, 2012.

24) 孫處訥, 『慕堂日記』 1614년(광해 6) 2월 26일. “與晞魯遊小有亭 適亭中 多聚好客 擇仲誤我也 黃魚大上 從古無有”

모여 교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李元禎의 <狎鷺亭記>를 보더라도, “벼랑모서리 빼어나게 좋은 데 있는 것을 소유정이라 하고 언덕 위 크고 화려한 데 있는 것을 압로정이라 한다.”²⁵⁾라고 하여 두 개의 정자를 함께 묶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압로정의 운자를 소유정의 제영시들에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정자는 다른 것이지만 금호강변에 함께 위치하면서 하나의 경관처럼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변에 접해 있는 누정의 경우 그곳에서 발생하는 공간감성은 강과 분리될 수 없고, 이들 경관에서 발생하는 자연의 미감 역시 항상 수반되는 것이다. 누정은 단순히 건립된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지닌 지정학적 위치 등과 함께 공간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낭만감성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모든 작품이 강가에 위치한 누정의 위용이나 자연의 아름다움만으로 창작된 것은 아니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琴湖之上洛江汀	금호강 위쪽 낙동강가에
卜地吾宗有是亭	터 잡은 우리 종친 이곳에 정자 있네.
津津談笑終宵好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밤새도록 좋았고
款款情懷落照停 ²⁶⁾	정담을 나누며 지는 해도 멈추게 하네.

尹鳳五(石門, 1688-1769)가 영벽정을 방문하고 쓴 작품이다. 영벽정은 尹仁浹이 1585년 건립한 정자로, 그는 조부 윤탕의 부임지인 尙州에 있을 때 영남의 산수를 유람하고 이곳에 터를 잡아 살기로 결심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낙동강가의 汶山에 영벽정을 건립하고 정사철 등과 교유하였는데, 그는 이 누정을 짓고는 “남으로 와서 경치 좋은 이 강가, 늙어감에 한가히 머물도록 작은 누정 지었네.[南來形勝此江汀 老去棲遲築小亭]”라고 하여 자신이 이곳에 정자를 지은 이유를 밝힌 바 있

25) 李元禎, 『歸巖集』 권6, <狎鷺亭記>. “在崖角而殊絕者曰小有 在岸頭而宏麗者曰狎鷺”

26) 尹仁浹, 『牙巖實紀』 권2, 『附錄』, <映壁亭題詠>. 윤인협의 유고를 모아 편찬한 『아암실기』에 영벽정제영시 작품들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원운시는 권1에 <映壁亭原韻>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다. 윤봉오는 윤인협이 이 정자를 지은 지 백 년도 더 지난 시기에 방문하여 윤인협을 떠올린다. 그가 “吾宗”이라고 표현한 인물이 바로 윤인협이다. 영벽정은 낙동강을 굽어보는 곳에 위치하여 그 경관이 아름다워 ‘낙동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이 걸리기도 한 곳인데, 윤봉오는 그 경관의 미감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선조를 떠올리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강변에 터를 잡아 지은 정자라는 점에서 그 경관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 주기는 하나, 이 공간에서 그가 중요하게 인식한 것은 바로 자신의 선조였다는 점에서 앞선 작품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을 떠올리는 것으로, 공간을 둘러싼 자연환경보다는 인물과 역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신을 함께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작품은 누정이 건립된 위치를 먼저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공간의 자연환경을 일차적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경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 제시할 작품들은 이러한 인식과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인다.

(가)

羣邪衆欲日相侵	못 사특함과 욕심이 날로 서로 침범하니
易放難求最此心	놓아버리기는 쉽고 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 마음이네.
克祛外馳方是學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곧 공부이니
神明又有質之臨 ²⁷⁾	신명이 또한 이 마음속에 임하리라.

(나)

主人心事與水清	주인의 마음 물처럼 맑으니
雲擁孤亭月又明	구름 속 외로운 정자 달이 또 밝게 비추네.
病欲蘇時心欲洗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씻고자 해야 하니
笑他塵世事經營 ²⁸⁾	다른 이들 속세의 일 경영함 우습네.

먼저 (가) 작품은 환성정을 건립한 李輅(苔巖, 1556-1604)의 작품이

27) 李輅, 『苔巖集』 권1, <喚惺亭>.

28) 郭再謙, 『槐軒集』 권1, <題全毅甫洗心亭>.

다. 그는 정자를 짓고 이 정자에 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을 작품으로 드러내었다. 정자의 명칭이 된 ‘환성’은 마음을 불러 일깨운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부여받은 바른 마음을 보존하기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마음이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가 기문에서 “(정자의) 그 북쪽은 팔공산이 우뚝하게 섰는데 기암괴석과 구불구불한 높은 언덕이 다 와서 떠받드는 형상이니 마치 武夷山의 大隱屏과 같다. 朱子의 시에 ‘예전처럼 푸른 산에 나무가 우거졌네.[依舊青山綠樹多]’라는 구절이 이것을 말함이 아니겠는가?”²⁹⁾라고 한 바 있다. 그는 환선정의 지리적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정자의 북쪽을 둘러싸고 있는 팔공산을 주자가 은거한 무이산에 빗대고 있다. 이는 그 스스로 추구하는 학문적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이 공간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자신을 일깨워주는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郭再謙(槐軒, 1547-1615)이 세심정에 대해 지은 작품이다. 세심정은 全應昌(1529-1586)이 금호강가에 지은 정자로, 현재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한 지점을 알기 어렵다. 정자도 현재 남아 있지 않은 데다 전응창의 문집 역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자의 건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하지만 몇몇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화마에 휩싸인 이후 1603년에 전응창의 아들인 全圃(1570-?)에 의해 중건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몇몇 작품들은 이때의 세심정을 방문하고 남긴 작품들로 볼 수 있다. 정자의 명칭인 ‘세심’은 전해지는 기문이 없기에 그 명명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제시한 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역』 <계사전 상>에 “성인은 이것으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은밀한 곳에 물러나 감춘다.[聖人以此洗心 退藏於密]”라고 한 데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음 수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나)에서 제시한 광재점의 작품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거울처럼 맑은 달을 마음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밝게 비추는 달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이 공간에서 이

29) 李輅, 『苔巖集』 권1, <환성정가>. “其北則八公屹立 奇巖怪石 卷阿高陵 悉來獻狀 有如武夷之隱屏 朱文公依舊青山綠樹多之句 非是之謂歟”

러한 요령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기도 하다.

세심정은 『모당일기』에 손처눌이 방문하였던 기록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나는 차마 작별하지 못하여 세심정에 이르러 배를 정박하고 이별의 회포를 풀었다. 세심정은 전한 공이 새로 지은 정자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바둑을 둔다는 말을 듣고 정자의 이름과 걸맞지 않음을 책망하였다.”³⁰⁾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공간은 속된 기운이 없어서 본연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서사원 역시 “직접 바위를 깎아 정자를 지었으니, 지금 그대의 이 뜻이 허탈하겠는가. 갯끈을 씻고 정자에 누워 맑은 마음으로, 난간에 임해 책을 읽으며 본성을 깨닫기 하네.”³¹⁾라고 하면서 전한이 이 공간에서 마음 수양을 하고자 함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구지역의 누정들은 누정을 건립하면서 주인이 부여한 명칭과 그 누정이 위치한 곳과 밀접한 관련을 지님을 보았다. 공적인 목적을 띠고 건립된 누정이 아닌 경우 누정이라는 공간에서 생성되는 감성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드러낸다. 특히 일차적으로 누정은 명승지에 건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느껴 낭만감이 생성되고 그것을 작품으로 창작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환성정과 세심정의 경우 건립자의 의도가 담긴 명명행위에 의해 도학감이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문학적 소통을 통한 공간의 향유

앞선 장에서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대구지역의 누정에서 생성된 감성을 살펴보았다. 누정에서 생성된 감성들은 문학작품 창작을 통해 공간에

30) 孫處訥, 『慕堂日記』 1604년(선조37) 8월 19일. “余不忍別 至洗心亭停舟紱別 洗心亭全公僦之新構 聞村人嘗會碁 責以不稱名”

31) 徐思遠, 『樂齋集』 권2, <題全毅甫洗心亭>. “手刷雲根結數椽 今君此意豈徒然 濯纓卧閣醒心地 開卷臨軒洗性天”

내재됨을 알 수 있었다. 앞선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대구의 누정공간에서 주도적으로 생성된 감성은 낭만감성과 도학감성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지역 누정 가운데서도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되었다가 중건된 누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서 일어난 사회적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지역에서 문학창작공간으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정자들이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건립되어 활용되지 않았던 것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공적 사건을 떠올려 인식할 만한 요소가 공간에 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정자가 강가에 위치하다 보니, 이 지역에 부임한 관리들이 방문하여 작품을 남기는 경우가 나타난다.

弭節將乘古渡舟	수레 멈추고 낚은 나룻배 타려 하니
角聲先到白蘋洲	호각소리 먼저 물가에 이르네.
主人有酒能迎客	주인은 술로 손님을 맞이하고
光景無邊政滿樓	끝없는 풍광 누각에 가득하네.
野闊沙平供遠望	들판은 넓고 모래는 평평해 멀리까지 보이고
雨香雲淡助清遊	비는 향기롭고 구름은 맑아 좋은 유람을 돕네.
年來愛水曾成癖	요즘 물을 사랑함이 취미가 되어
此夕偏傷計謬悠 ³²⁾	오늘 저녁 계획 어긋나 가슴 아프네.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한 金止男(1559-1624)이 하목정에 들러 남긴 작품이다. 전반적으로 하목정을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고 있다. 그 스스로 “清遊”라고 표현했듯이, 이때의 공간 방문은 유람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었기에 관리로서의 포부나 정회 등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지남 외에도 대구부사 趙國賓(1570-?), 대구부사 李穡(1589-1631) 등이 하목정을 방문해 작품을 남겼는데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대구군사 琴柔가 금학루 제영시에서 “고을 다스리느라 피곤하였는데, 누각에 오르니 시야가 훤히 트이네.”³³⁾라고 읊은 것과는

32) 『慶尙道邑誌』, 「대구부」, 「제영」.

33) 『慶尙道邑誌』, 「대구부」, 「제영」. “爲郡身瘦倦 登樓眼豁明”

다른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금유는 경치를 즐기기 위해 누정에 오른 것이 아니라 공무 중에 휴식을 위해 공간에 방문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학루는 예약의 다스림을 바라며, 관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앞선 장에서 살펴본 작품들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공간에 근본적으로 내재된 공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방문의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을 달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목정은 전의이씨 문중의 대표적인 정자이기는 하나, 문중정자로만 기능하지 않고 뱃길을 따라온 다양한 이들이 명승지로 방문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산의 절을 찾아가다가, 하목당에 먼저 올랐네.”³⁴⁾라고 하거나, 아름다운 풍광에 취하다 보니, 가야산 가는 길을 문득 잊었다고 읊은 것에서 행로 중 하나로 이곳을 방문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西坡 吳道一, 漢陰 李德馨 등 다양한 인물이 이 공간을 방문하여 작품을 남긴 것 역시 하목정이 위치한 장소에 기인한 것이며, 이처럼 누정에서 생성된 감성들은 지속적으로 재생된다. 이는 제영시의 원운이 존재할 경우 더욱더 극대화되어 나타나며, 원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각 누정에 계관된 작품들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차운시가 지속적으로 창작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정자가 강을 인접하고 있다는 것은 경관이 아름다운 요소도 되지만,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육로 외의 이동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강에 배를 띄워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도 하다.

채선길 길중이 (성주를) 소유정으로 초청하려고 화분까지 늘어놓고 맞이하려고 하였다. 서기원과 여극홍이 술을 가지고 와서 성주를 알현하였다. 나는 몸이 편치 않아서 사양하고 소유정에서 조섭하였다. 성주는 또 조합영이 가지고 온 술에 취하여 뱃전을 두드리며 크게 즐겼다. 해가 떨어지도록 술에 취해 어지러이 춤을 추었다. 자주 소유정에 왔었지만, 또 머물러 자게 되었다.³⁵⁾

34) 『慶尙道邑誌』, 「대구부」, 「제영」. “未到伽倻寺 先登霞鶯堂”

『모당일기』 1614년 10월 7일자 기록이다. 소유정에서 수령인 김윤안, 조형도, 서시립 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일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 이들은 동화사를 유람하고 서시립의 계당을 방문하였다가 소유정으로 온 것이다. 소유정은 이때의 기록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였는데, 정구가 신병 치료 차 동래로 육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밥을 먹은 뒤에 갑자기 선생께서 이미 반야촌을 지나 소유정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소유정으로 말을 달려가 안부를 물었다. 순찰사 윤희가 먼저 와 정자에서 대접하고 있었다. 지나온 군과 현에서는 맞이하고 따르는 선비들로 길이 메워졌다. 저녁 무렵에 길을 나섰는데, 늙은이가 바람을 맞으며 밤에 말을 달릴 수가 없어 정자 아래에서 선생께 하직 인사를 하였다.”³⁵⁾라고 되어 있다. 당시 정구의 문인뿐만 아니라 인근 선비들이 영접하기 위해 나온 것들을 보면 이때의 누정은 단순히 교유의 장을 넘어 당시 학문적 관계망을 보다 결속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17세기에는 지역에 관리로 부임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누정에 작품을 남기고 그곳에서 관계를 맺은 이들은 대체로 이 지역 내에서 학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족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일기에 누정을 방문하는 기록들은 대체로 평소에 교유하던 이들을 방문하는 일들이 다수였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정자를 경영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今見佳於昔聞佳	오늘 예전에 들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茲亭不可等閒過	이 정자를 등한히 지나칠 수 없네.
地名無忘丹書在	지명이 무태이니 丹書의 가르침이 있고

35) 孫處訥, 『慕堂日記』 1614년(광해 6) 10월 7일. 蔡先吉吉仲 將邀入小有亭 載及花盆而迎 徐期遠呂克弘持酒來謁 余以氣愆辭 調小有亭 城主又醉 趙咸英酒叩船大樂 日沒醉亂舞 屢及小有亭 又留宿“

36) 孫處訥, 『慕堂日記』 1617년(광해 9) 9월 4일. “食後猝聞 先生已過半●(夜)野村 中火小有亭 馳候於亭 巡使尹暉先待於亭 過來郡縣士子迎從者塞路 將夕發行 老物不可冒風 馳夜於亭下拜辭路”

天象喚惺明月多
習禮帶分庭下樹
談經卦列案頭沙
起余歸讀家山想
脉望朝朝老奈何³⁷⁾

하늘이 정신을 깨우치게 하는 듯 밝은 달이 환하네.
빙 둘러앉아 예를 익히는 뜰아래에 나무가 서 있고
책상 앞 경전을 논하며 모래로 주역의 卦象을 나열하네.
山家에서 강학하며 나를 일깨운 것을 생각하며
혈맥을 바라보니 아침마다 늙어가니 어찌하리오.

李直鉉(是庵, 1850-1928)의 작품이다. 그는 1917년에 대구를 방문하여 환성정에서 『주역』을 강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먼저 후손들이 선조의 가르침을 잘 계승하고 있음을 칭송하였다. 무태의 지명이 고대의 黃帝와 顓頊의 丹書의 가르침과 부합하고, 喚惺의 의미 역시 이러한 가르침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³⁸⁾ 이렇게 본다면 앞서 정자의 명칭이 주는 의미를 그대로 작품에 담아낸 작품들과 별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직현은 합천에 거주하던 인물로, 奇正鎭, 宋秉璿의 문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직현보다 이른 시기에 그의 스승이었던 송병선이 1903년 3월 대구 지역을 방문하여 환성정과 영벽정 등에서 강회를 열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기 때문이다.³⁹⁾ 송병선은 50세 이전까지는 주로 옥천에서 강회 활동을 하였으나, 이후 그 경북 지역으로도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간 바 있다.⁴⁰⁾ 결국 이직현이 이 공간을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옛날 스승의 강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스승의 자취가 서린 곳에서 다시 한번 학문적 연대감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이 공간은 崔益鉉 역시 방문하여 공간의 명칭이 주는 의미를 재생하여 작품을 남긴

37) 李直鉉, 『是庵集』 권2, <喚惺亭講後酬諸友>. (구본옥, 「태암 이주의 환성정에 관한 고찰」, 『조선사연구』 22, 조선사연구회, 2013, 132쪽에서 재인용.)

38) 구본옥, 「태암 이주의 환성정에 관한 고찰」, 『조선사연구』 22, 조선사연구회, 2013, 132쪽.

39) 김중수가 송병선의 연보를 통해 파악한 25차례의 강회·향음례에는 1903년의 대구지역에서의 강회가 드러나 있지 않다. (김중수, 「연재 송병선의 생애와 순국」, 『전북사학』 57, 전북사학회, 2019.) 하지만 禹成圭의 『同宋淵齋遊覽日錄』에 따르면, 1903년 3월에 송병선이 대구 지역에서 강회를 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40) 이와 관련해서는 김중수(2019)의 논문에 자세하다.

적이 있다는 점에서도 공간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소통의 시도를 읽어낼 수 있다.

이는 환성이라는 정자의 명칭이 주는 의미가 이 공간을 인식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동시에, 조선후기 지역 내 새로운 학문적·정치적 분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지역의 누정은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향촌사회의 혈연적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학문, 문학적 연계망을 공고히하는 과정 등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강을 중심으로 한 영남의 문화는 문화권역을 형성하면서도 같고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별할 때, 중류에 위치한 대구는 이들 문화가 모두 수렴되는 위치를 가진다. 본고에서 살펴본 강가에 위치한 대구의 누정들은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문중이나 지역민만이 향유하는 공간을 넘어서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소통은 공간감성의 생성과 이에 따른 문학작품의 창작으로 나타난다. 또한 본고에서 주목한 누정들이 건립되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16~17세기 경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당시 본격화되기 시작한 선유문화와 지역사립을 중심으로 한 연경서원 건립과 같은 학문 진흥의 움직임 등이 문학적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으리라 볼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낙동강과 금호강가에 위치하는 대구지역의 누정을 살펴보고, 특정한 누정 공간에서 창작된 작품들을 통해 당대인들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를 살펴보았다. 대구는 감영이 위치하였고, 영남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낙동강의 중류에 위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상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누정은 강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관이 빼어난 곳에 건립되어 수많은 이들이 방

문하여 문학작품을 생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따라서 대구지역에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누정과 그곳에서 생성된 문학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琴湖清淺泛蘭舟	금호의 맑고 얇은 곳에 목란배 띄우고
取次閑行近白鷗	차차 한가롭게 백구 곁으로 가네
盡醉月明回棹去	달 밝은 밤 한껏 취해 노 저어 되돌아가니
風流不必五湖遊 ⁴¹⁾	풍류가 반드시 오호에 노닌 것만이 아니네.

서거정 역시 대구지역의 열 곳의 명승지를 읊으면서, 가장 먼저 금호강을 떠올렸음을 본다면, 이 지역에서 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낙동강과 금호강은 대구지역의 문학작품 생성의 공간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구지역의 누정들은 대체로 공적인 목적을 지닌 누정보다는 사적으로 건립된 누정이 대다수를 이뤘으며, 이 가운데서도 강가에 건립된 누정이 주로 문학창작공간으로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공간에서 생성되는 감성은 누정을 건립하면서 주인이 부여한 명칭을 비롯하여 그 누정이 위치한 곳과 밀접한 관련을 지님을 보았다. 이는 누정의 대체적인 성격이기도 하나, 일차적으로 누정은 명승지에 건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느껴 낭만감성이 생성되고 그것을 작품으로 창작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환성정과 세심정의 경우 건립자의 의도가 담김 명명행위에 의해 도학감성이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에 관리로 부임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누정에서 작품을 남기고 그 공간에서 관계를 맺은 이들은 대체로 지역 내 학문적 공동체가 중심을 이루었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정자를 경영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소통의 시도가 포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문학작품 속 공간은 인간, 즉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체함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작품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41) 徐居正, 『四佳詩集補遺』 권3, <大丘十詠>.

된다. 즉 당대인의 인식과 문화는 그들이 창작한 작품 속에 생생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대구지역에는 수많은 누정이 있고, 그 공간에서 창작된 작품을 셀 수 없이 많이 남아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리지를 중심으로 몇 개의 누정을 뽑아 살펴본 한계가 있다. 지금의 논의를 확장해나간다면, 대구의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당대인들의 삶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3년 10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0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0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慶尙道邑誌』

『大丘邑誌』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李重煥, 『擇里志』

정병호 등 역, 『국역 대구부읍지』, 대구시·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1.

구본옥, 「팔공산과 금호강을 왕래하며 강학한 송담(松潭) 채응린(蔡應麟) -대구 제 1의 정자 압로정(狎鷺亭), 소유정(小有亭)과 관련하여-」, 『조선사연구』 21, 조선사연구회, 2012, 1~51쪽

구본옥, 「태암 이주의 환성정에 관한 고찰」, 『조선사연구』 22, 조선사연구회, 2013, 107~139쪽.

구본옥, 「낙포 이종문의 생애와 하목정(霞鷺亭)」, 『조선사연구』 26, 조선사연구회, 2017, 1~22쪽.

김종수, 「연재 송병선의 생애와 순국」, 『전북사학』 57, 전북사학회, 2019, 243~272쪽.

沈慶昊, 「국토산하를 노래한 한국한시의 미학적 전통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18, 한국한문학회, 1995, 67~95쪽.

이재두, 「조선 후기 『대구읍지』 편찬과 사족의 대응 -과거편과 인물편의 인물 수록 시기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학』 2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341~375쪽.

曾大興 저, 정우락 외 옮김, 『문학지리학개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22.

최은주, 「낙동강에 대한 공간감성과 그 의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역락, 2022.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https://diary.ugyo.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Abstract

Spatial Recognition and its Meaning in the Daegu area's Nujeongjeyeong poetry

Choi, Eu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ujeong(樓亭) in the Daegu area and to examine how the people of the time perceived the space through works created in specific Nujeong(樓亭). The reason why Nujeong(樓亭) was chosen as the target among literary creative spaces is because Nujeong(樓亭) that many people come and go are usually built in places with excellent scenery, and in these cases, they are often accompanied by a geographical environment such as a river. Since the space in literary works is closely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humans, that is, the artist who created the work, it is revealed in various forms in the work. Therefore, it is a material that can vividly examine the perceptions and culture of the people of the day.

Daegu has been the center of Gyeongsang-do since Gyeongsang Gamyeong was located in 1601. During this period, Daegu was not only able to function as the center of administration because it was the place where observers stayed, but it was also able to occupy a central position in that it wa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Nakdong River that penetrated Yeongnam to the north and south. In particular, the Nakdong River was said to be a large river in Yeongnam, and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ocal culture, such as the division of the left and right sides of Gyeongsang-do around this river. Therefore, looking at the pavilion formed around this river and the literary works

created there is also an important meaning in understanding local culture.

First, by looking at the Nujeong(樓亭) presented in the geography,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pavilions in the Daegu area was grasped. Based on this, we tri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contemporary people through specific works targeting the Nujeong(樓亭) where jeyeong poetry(題詠詩) remains.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know that the Nujeong(樓亭) in the Daegu area were closely related to the name given by the owner and the place where the Nujeong(樓亭) were located while building the Nujeong(樓亭). In the case of a Nujeong(樓亭) built for a public purpose, the emotion created in the space called the Nujeong(樓亭) is often revealed similarly. Therefore, most of the romance sensibilities created through the enjoyment of nature are ca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lso a Nujeong(樓亭) where moral sensibility was created through the naming act containing the intention of the founder. Through this, the Nujeong(樓亭) in the Daegu area was recognized as a space where various characters visited and enjoyed beautiful arithmetic based on the circularity of the riverfront area, while strengthening the blood ties of the Hyangchon society and connecting academic and literary networks.

keywords :

Daegu, Nujeong(樓亭), Nujeongjeyeong poetry(樓亭題詠詩), Spatial Recognition